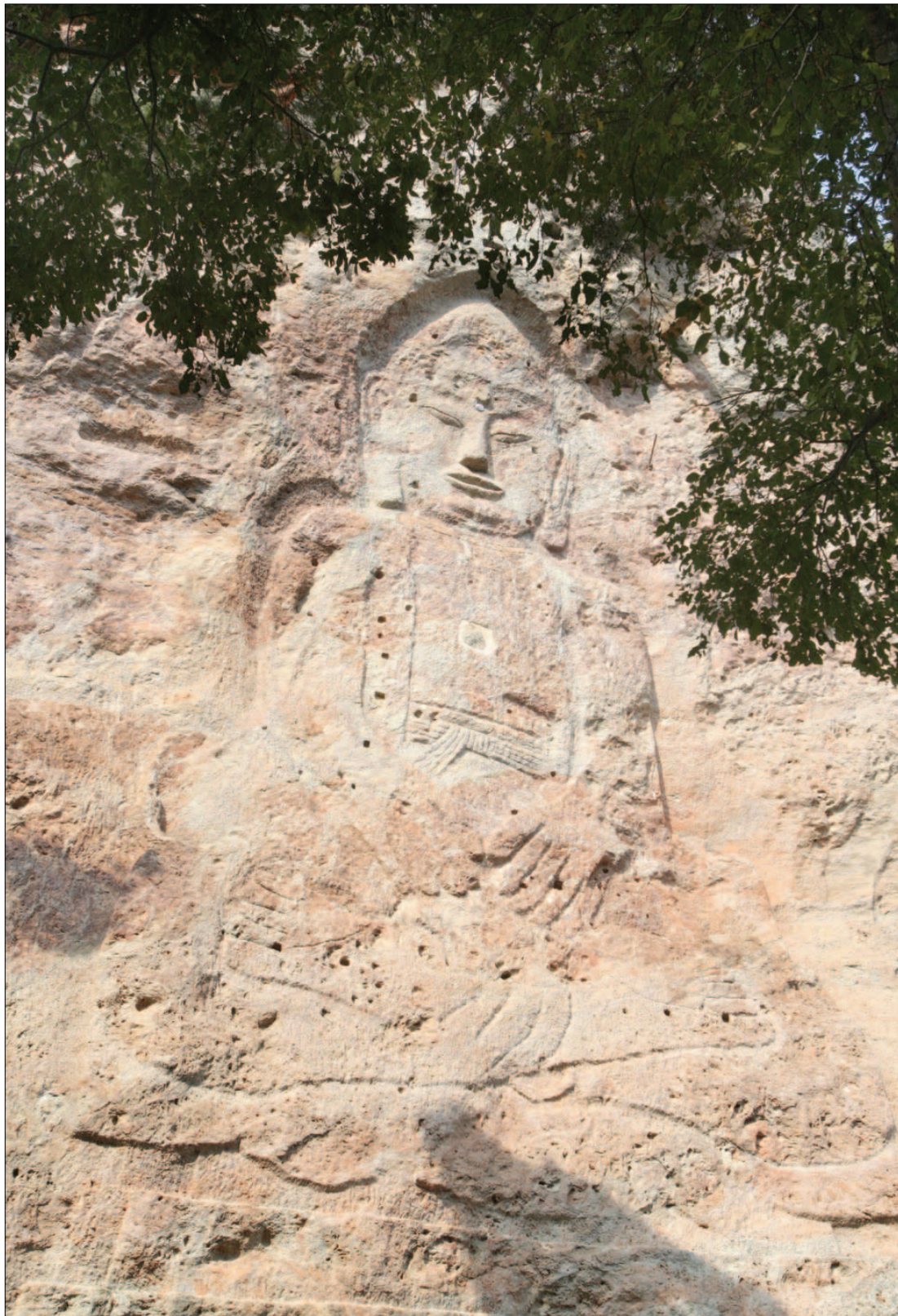


장금이 걸어간 길에 도솔천 미륵부처님이...

드라마 촬영지 3-고창 도솔암(대장금 촬영지)



도솔암 서편의 암벽에 새겨진 마애불(보물 1200호)



도솔암 전경



도솔천에 내원궁이 있듯이 도솔암에도 내원궁이 있다.

“장금이, 수라간 최고 상궁이 되어다오.”
어머니 열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드신 산딸기가 놓여있다.
“어머니, 이제 저 갈래요.”

어린 장금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의 돌무덤을 쌓고는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올린다. 2003년 방영됐던 드라마 ‘대장금’에서 어린 장금은 깊은 산 중에서 홀로 어머니의 임종을 지킨다. ‘대장금’은 주인공 장금이 궁궐에 들어가 최초의 어린녀가 되기까지, 장금의 성공과 사랑을 그려낸 드라마다. 어린 장금이 어머니를 여의고 돌무덤을 쌓는 장면(제2회)의 촬영지는 고창 도솔암의 도솔산(선운산)기슭 용문굴이다.

깊은 하늘 밑의 도솔암

도솔암은 미당의 시와 동백이 떠오르는 선운사를 거쳐서 간다. 선운사 일주문이 보이고 일주문 너머로 보이는 숲엔 홍엽이 번지고 있다. 푸르던 숲을 떠올리니 뜨거웠던 한 시절이 화로 속에 날아든 눈송이처럼 홍엽의 숲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노랑계 익어가는 은행나무들 너머로 선운사 도량이 보인다. 선운사를 바라보며 도솔암으로 향한다. 선운사에서 약 3km다. 길은 완만하다.

깊어진 하늘 밑에 도솔암이 있다. 극락보전, 선방, 내원궁, 나한전, 신선각이 있으며 나한전 옆으로 거대한 암벽에 마애불을 모셨다. 도량은 크지 않지만 도량이 품고 있는 풍경은 넓었다. 도솔(兜率), 도솔은 미륵보살이 머물고 있는 정도로 육계의 여섯 하늘 중 네 번째 하늘이다. 부처님을 마음속에 담은 중생이라면 꼭 가고 싶고, 꼭 가야 할 곳이다. 그래서일까. 깊은 가을 하늘 아래 숨겨놓은 듯한 도솔암의 안과 밖은 생각하기에 따라 작게도 보였고 한 없이 넓게도 보였다. 마당 끝에 놓인 법당 한 채엔 중생이란 중생이 모두 들어가 앓을 듯했고, 법당에서 내다보이는 세상에 어디 한 곳 밧디 닦아 보이지도 않았다.

미륵도량 도솔암

도솔암은 언제 창건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적기에는 선운사와 함께 백제 때 창건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라 진흥왕이 만년에 왕위를 버리고 도솔산의 한 굴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바위가 쪼개지며 그 속에서 미륵삼

존불이 출현하는 꿈을 꾸고 이에 감응하여 도솔사 등 여러 사암을 창건했다고 한다. 진흥왕은 통일신라 이전의 신라의 왕이었는데 당시 백제의 영토였던 이곳에 신라왕이 머물렀다는 설화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지만 미륵삼존의 출현이나 도솔이라는 이름 등은 도솔암이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창건된 사찰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도솔암 서편의 거대한 암벽에 새겨진 마애불 좌상(도솔암마애불·보물1200호)은 고려 초기의 마애불 계통 불상으로 주목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마애불을 미륵불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으로도 도솔암과 미륵신앙의 깊은 연관성을 볼 수 있다.

마애불좌상이 조성된 이래 불상의 가슴 중앙에는 신기한 비결(秘訣)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전해 오는데, 동학농민전쟁무렵에는 동학의 주도세력들이 현세를 구원해줄 미륵의 출현을 내세워 민심을 모으기 위해 이 비기를 꺼내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출토된 기와에는 ‘도솔산 중사(中寺)’라는 명문이 있어 당시에는 절 이름을 중사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주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도솔암은 상도솔암, 하도솔암, 북도솔암 등 세 암자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근세와 와서 북도솔암을 중심으로 하나의 암자로 통합했다.

도솔천 내원궁

도솔천은 내원(內院)과 외원(外院)으로 되어 있다. 외원은 수많은 천인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고, 내원은 미륵보살의 정토로서 내원궁(內院宮)이라고 부른다. 내원궁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 태어나기 전에 머무시면서 중생 교화를 위한 하생(下生)의 때를 기다렸던 곳이다. 미륵보살은 현재 내원궁에서 설법하면서 남섬부주(南瞻部洲)에 하생하시어 성불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극락보전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오르면 도솔천내원궁이 있다. 지장보살좌상(보물 280호)을 모셨다. 도솔암은 미륵도량인 동시에 지장도량인 것이다. 험준한 바위 위에 세운 법당으로 상도솔암이라고도 한다. 도솔천내원궁을 내려와 나한전을 끼고 돌면 도솔암마애불을 만날 수 있다. 도솔암 서편 암벽에 모신 마애불은 높이 13m, 너비 3m에 이르는 거대한 불상이다. 전설에 의하면 백제 위덕왕이 검단산사에 게 부탁하여 암벽에 불상을 모시고 동불암이라는 공중누각을 짓게 했는데, 조선 영조 때 무너졌다고 한



드라마 ‘대장금’에서 장금이 어머니 돌무덤을 쌓고있다.

다. 불상은 낮은 부조로 연화대와 위에 결가부좌한 모습이다.

장금이의 용문굴

마애불을 끼고 도솔산을 조금 오른다. 마애불이 모셔진 암벽 뒤편에는 힘든 중생들의 염원과 서원이 담긴 적석탑이 부처님 발아래 모여 있다. 약 300m쯤 산길을 걸으면 어린 장금이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돌무덤을 쌓았던 용문굴이 나온다. 드라마에서 장금이 쌓았던 어머니 돌무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어머니, 말씀 그만 하시구 이걸 드셔요, 드신 것이 없어 힘이 드실 것이옵니다.” 장금이 어머니 입에 산딸기를 물린다.

“맛있구나.”
“뭇 씹으셔요? 그럼 제가 씹어드릴게요. 어머니도 제가 아플 때 그리 해주셨죠?”

어머니는 더 이상 산딸기를 씹지 못한다.
“어머니 드셔요, 드셔야 기운 내시죠.”
장금이 눈물을 흘린다.

드라마 대장금은 도솔산 기슭에서 이렇게 시작됐다. ‘장금’은 조선 중종 대의 어린녀로 왕의 주치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 대(大)자를 붙여 일명 ‘대장금’으로 전한다. 출생연도와 성씨, 본관, 출생 배경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어린녀 중에 왕의 주치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의녀 가운데 유일한 것으로 회자된다. 천민 신분 의녀로서 수많은 남자의 의관을 제치고 왕의 주치의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 남성 위주의 엄격한 관료주의 사회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로서 그녀가 뛰어난 의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린 장금은 어머니의 돌무덤을 쌓고 산을 내려갔다. 장금은 내려가는 길에 마애불을 보았을까. 드라마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장금은 분명히 부처님을 뵈고 갔을 것이다. 모든 힘든 이들의 미래인 미륵불이기 때문이다.

고창 도솔암=백제왕기자

주변보기

(사찰)

■ 선운사 / 선운산도립공원 내, 백제 위덕왕이 창건한 선운사는 보물 290호인 대웅전과 보물 279호인 금동보살좌상 등 19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 문수사 / 고수면 은사리 48

백제 의자왕 3년(643)에 신라의 자장율사가 지은 사찰. 청량산 중턱에 있으며, 천연기념물 단풍나무숲으로 가을에 더욱 아름답다.

(가볼만한 곳)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유적·고인돌박물관 / 고창읍 죽림리 일대 (063)560-8662

고창고인돌유적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넓게 고인돌군집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매산리 산기슭에서부터 약 1.5km 이어지며 447기의 고인돌이 있다.

고창읍성 / 고창읍 읍내리 신9 (063)560-8067

고창읍 읍성은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조선 단종 원년(1453)에 잔라도민들이 축성한 성곽.

고창갯벌 / 부안면 심원면 일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고창 갯벌은 40.6km²의 면적에 펼갯벌, 혼합갯벌이 조화롭게 분포되어 다양한

저서동물과 염생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 보존 가치가 높다.

(숙박)

고창군선운산유스호텔 / (063)561-3333

선운산관광호텔 / (063)561-3377

정다운펜션 / (063)561-1589

(식당)

동산식당 / (063)563-9400 굴비정식, 풍천장어, 산채비빔밥

아산가든 / (063)564-3200 장어구이(전라북도 지정 우수외식업소)

진흥가 / (063)563-3441 장어구이, 산채비빔밥

since1973

2014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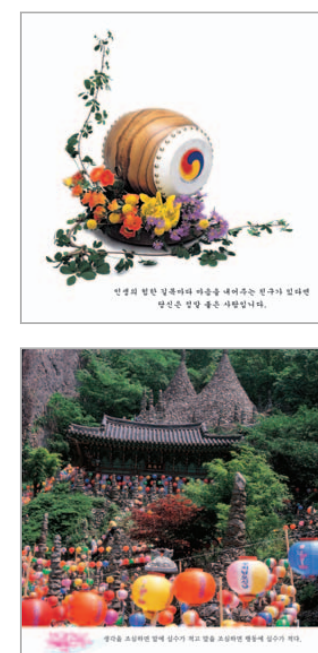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상호인쇄



• 12절(소)달력
3,000부 이상 @ **800** 원
2,000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 원
• 규격 : 25.8cm × 26.5cm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 × 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cm × 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 수침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2000부 @600원 • 100부 @800원
• 규격:9.5cm × 13.4cm • 매수:18장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2000부 @400원 • 100부 @600원
• 규격:8.9cm × 9.5cm • 매수:16장